

광주시-시의회, 물 절약 '조레 콜라보'

시청, 물 아껴쓰면 수도료 최고 13% 감면 조례화
의회, 절수 설비 지원 등 담은 물 절약 조례 발의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에서 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집행부와 의회가 번갈아가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조레 협업'으로도 받아들여진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북구5) 의원은 최근 '광주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석호(북구4) 환경복지위원장과 최지현(광산1), 박미정(동구2)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도법에 따라 일선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에 필요한 지원과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

를 광주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정기적·전문적 교육체계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등의 사항을 광주시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수도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내 물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광주시가 수도물을 아껴쓰면 최대 13%까지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해 입법화했다. 수도물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 들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 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시는 이 제도가 가뭄 극복을 위한 수도물 절약은 물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생활 속에서 물 20% 아껴 쓰기'와 급수 설비 수압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과 영산강 하천수 공급방안 등 상수원수 비상공급대책도 추진중이다.

이슬비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대설·한파' 시설물 피해 조사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설·한파 대처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발빠른 제설작업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농축산 시설물 피해 현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긴급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국비 10억

맞춤형 프로그램·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기대

전남도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공모사업에 강진군과 고흥군이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 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문화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흥군은 거점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창작활동과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해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융복합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문화실험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해남군은 43개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 '우리 마을 화(화)페스티벌'을 개최해 우수 시군으로 선정, 국비를 지속해서 지원받게 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지스트 "따뜻한 대륙성 공기가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 농도 더 악화시킨다"

지스트 등 韓美 연구진 기상패턴 따른 미세먼지 변화 규명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대륙성 공기가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키는 데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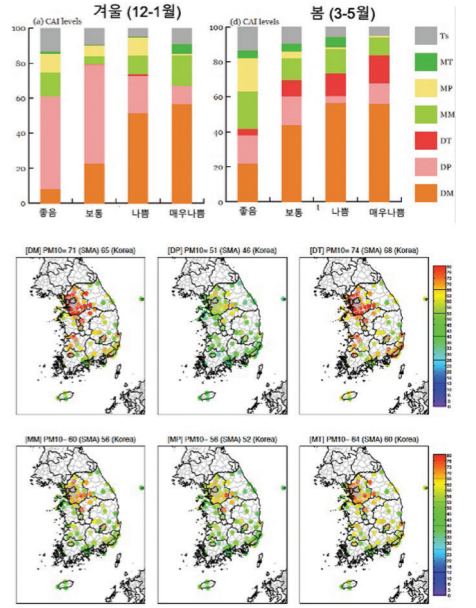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다솜 선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 서울기술연구원, 전남대 및 부경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메릴랜드대학교 등의 공동 연구진은 계절별 기상 패턴에 따른 미세먼지의 변동성을 분류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중관기상패턴 중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만드는 대륙성 온난 기단(Dry Moderate: DM)과 대륙성 열대 기단(Dry Tropical: DT)이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며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륙성 온난 기단은 온난건조한 날씨, 대륙성 열대기단은 대륙성 온난 기단보다 더 더운 날씨 조건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1988년 이후 30여 년 동안의 중관기상패턴 분류(Spatial Synoptic Classification: SSC) 자료를 사용해 계절별 중관기상패턴과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고기압성 순환 발달과 북풍 계열 바람을 약화시키는 대륙성 온난 기단과 관계가 깊고 저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북풍 계열 바람을 강화시키는 대륙성 한랭 기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 범위에 따른 중관기상패턴 분류(SSC) 발생 빈도(위), 아래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한반도 지역 SSC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공간분포. 이를 통해 대륙성 온난 및 열대 기단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유리한 기상 조건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사진=지스트 제공)

반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고기압성 순환 발달 및 대기안정도를 강화시키는 대륙성 온난 및 열대 기단과 관계가 있고 특히 대륙성 열대 기단은 대기안정도를 매우 강하게 발달시켜 매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 2023년 어촌활력증진사업 전국 최다 선정

전남도는 2023년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사업 공모에 17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1천 410억 원(국비 927억 원)을 확보,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어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거뒀다.

어촌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으로 어촌·어항에 대한 생활·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어항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국 6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전남도는 13개 시군 38개소를 신청해 26%인 17개소가 선정됐다.(여수1, 순천1, 보성1, 고흥2, 강진1, 해남2, 무안2, 영광1, 완도1, 진도2, 신안3)

이번 공모사업은 3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1유형에 선정된 보성 읍포항에는 300억 원을 들여 호텔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상물 판매시설 및 청년 창업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 청년마켓, 공원, 광장, 해변데크 등 경관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재탄생한다.

2유형은 순천 용두항 등 6개소가 선정돼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액티브조직이 구성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100억 원을 들여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어항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

3유형으로 여수 소뎡어항 등 10개소에는 어촌·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50억 원으로 방파제·물양장 및 점안시설 등 어항 기반시설과 생활안전시설 등이 개선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